

전북도, 사회적 농업 중심지 급부상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 신규 4개소 포함 전국 최다 10개소 운영

전북도가 농업의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는 '사회적 농업'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2021년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돼 사회적 농업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이란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인, 범죄피해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생활 활동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교육·고용·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기반을 다져왔다.

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정책 용역을 추진했고, 전북도의회는 '전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송성환 의원) 제정을 했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됐다.

이와 함께 도 자체사업인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적극 실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신규 4개소를 포함해 전국 최다 10개소 사업장을 운영하게 돼, 사회적 농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군산시 사단법인 산돌(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익산시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독거노인, 장애인 등) ▲완주군 영농조합법인 꿈드림(미혼모자, 독거노인, 장애청소년 등) ▲진안군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업

활동을 통한 육체적·정서적 치유 활동과 농촌 정착지원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도는 익산, 남원, 임실 일대에 '생생마을 플러스' 도농상생 힐링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도시민은 재능 기부, 지역주민은 농촌에너지 자원(음식, 숙박, 여행 등)을 제공하는 치유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물국장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마을주민, 도 시민이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생위기 극복·따뜻한 전북 만들 것”

도, 비대면 시무식... 올해 사자성어 '영정치원' 새해 힘찬 포부·코로나19 극복의지 등 다져

전북도가 4일 신축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온라인 비대면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시무식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매해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기존 시무행사와 달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년인사를 전하고 단체 희망메시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새해 힘찬 포부를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위기 극복과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으로 선정했으며,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한우 개량 기반 강화 나선다

도내 가축시장 거래 한우 부모 소 일치 확인검사

전북도가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부모 소 일치 확인검사로 차별화된 운영에 나선다.

도는 도내 10개 가축시장(지역축협 9, 협회 1)에서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 부모 소 일치 확인검사로 이력관리 신뢰도를 확보해 전북한우의 개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가축시장에서 한우 거래를 원하는 농가가 가축시장 운영기관에 거래를 신청하면 부모 소 일치 검사를 운영기관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검사기관에서 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를 가축시장 거래 시 표기 및 결과 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해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가축시장 운영기관의 전북한우 개량을 위해 자율적 추진에 협력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 효

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료채취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료채취와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두당 2만원 남짓이다.

김추철 전북도 축산과장은 "시행 초기에 농가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북한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불안한 한우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하며 "행정과 생산자 단체 및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는 도내 한우농가에 충분히 홍보해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라북도경찰청’ 현판식 4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쌀 ‘예담채 심리향미’ 품질 ↑

도, 가공·소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쌀 변별 안착 계획

지난해 첫 출시와 동시에 완판을 기록한 광역브랜드 쌀 '예담채 심리향미'가 명품 쌀로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신제품 향미 '심리향'을 '예담채 심리향미'라는 광역브랜드 쌀로 개발·육종해 2020년 시장에 첫 출시했다.

'예담채 심리향미'는 10kg에 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6개월만에 110톤을 완판, 전북 쌀의 중저가 이미지 개선에 신호탄을 쏘았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소비자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가격이 이전 쌀 및 오대쌀과 비슷하다면 구매한다는 의견이 62.5%로 고가 명품 쌀로서 인정 받는 모습을 보였다.

도는 이러한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올해로 2년차로 들어서는 '예담채 심리향미'를 더 좋은 품질로 향상해 시장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가공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쌀의 변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심리향' 우량종자를 브랜드 단지에 전량 공급해 재배하고, 친환경 단지(10ha)도 조성해 고품질 쌀로 생산한다.

또한, 총사업비 24억원으로 심리향 전용 도정·건조·저장 시설을 구축해, 전량 저온 보관하고 완전미 비율을 95%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 전북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 지원

어릴 적 옛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와 따뜻한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북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활동인원을 늘리고, 새롭게 선발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만 56~80세의 여성 어르신을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파견해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한 이야기할머니는 미래세대의 조기 인성교육과 노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전통문화의 세대 간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12기 선발을 완료했으며, 신규로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야기 구연 활동을 하게 된다.

2021년 도내에서 활동하게 될 이야기할머니는 총 182명으로, 전년 159명보다 23명 활동 인원이 늘었다.

아울러, 2021년도 13기 이야기할머니에 도전을 원하는 도내 어르신은 1월 중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에서 공고물을 확인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야기할머니 교육과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 방식과 동영상 활용 비대면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활동 역시 어르신과 유아들의 감염에 최대한 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선발이나 파견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누리집(http://storymama.kr)이나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대표전화(080-751-07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